

## “방재시험연구소 개소 10주년에 부쳐”



박 태 유  
(중앙소방학교장)

### 1. 머리말

화재보험업무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그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생활소재 전반과 기술을 창출해내므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여타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주로 사건 사고시 인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화재보험은 불의의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면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술의 개발과 신기술 도입에 온 정열을 쏟아온 방재시험연구소의 오늘의 발전상은 곧 우리 소방발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생명보험 조차 인식이 미흡했던 시기에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며,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 직원의 각오는 마치 개척자와도 같은 비장한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입니다.

방재시험연구소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방재시험연구소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2. 방재시험연구소의 역할

방재시험연구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매우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내·외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뼈아픈 경험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전환되는 수준과 맞물려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문제를 다루는 각종 매체들의 정보가 넘치고 있으며, 영상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소방안전 프로그램은 인기도 면에서도 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한차원 높아진 성숙된 국민의식이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상황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관심은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정확하고 완벽한 보상제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질 좋

은 서비스도 기대하게 되고 아울러 소방상품의 질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검증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험관리와 관련한 각종 용품의 소재개발과 소방용품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선택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계 경제 조류가 무역자유화 바람을 타고 WTO 체제를 출범시켰고, 첨단과학을 토대로 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필연적으로 소방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the fire Administration)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경제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GATT 경제체제에서 WTO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심국가 부재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중심지가 미국중심의 1

국 체제에서 EU, NAFTA, APEC, ASEM 등을 중심으로 한 다국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다양화(Desynchronization)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경제 BLOCK화) 확산은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처럼 어느 한 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주도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협조를 필요로 해야만 하는 정책의 세계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국경이 개방되고 세계시장이 개방될 것입니다. 교역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상품의 무국경, 무국적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질 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을 선호할 것

이며 자유롭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협력을 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이 격화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보다 질 좋은 제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보험 사업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 소방기술 부문에도 당장 피부에 와닿는 영향을 직·간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ISO TC/21(국제표준화기구 소방규격기술위원회)의 규격경쟁 NFPA제정 NFC의 국내적용 요구, 선진국 소방업체의 국내진출을 위한 개방압력 등의 예를 대표로 들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Recall제도와 PL법(Product Liability)이 발효되어 소방제품과 소방기술의 신뢰도 문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같은 어려운 소방환경에 의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조성한 것은 그동안 방재시험연구소가 방재산업기술의 첨병역할을 다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과 방재에 관한 문제가 아직 여명이이자 유아기적 상태에 있던 시절에 소방기술의 불모지를 일구기 위하여 연기기능을 선도했던 의지와 지혜는 바로 미래지향적 선견지명이었다고 봅니다.

### 3. 국가공인시험기관인정

1986년 4월에 한국화재보험협



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로 설치되어 그 이듬해인 1987년 10월에 내무부로부터 방재시험연구소를 국가공인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해마다 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화성능, 방화성능, 제품형식 승인의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1995년 9월에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 및 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되므로서 명실상부한 인증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소방학술세미나 개최, 과학적인 3백여종의 시험기기 구비, 정보센터를 통한 국내외의 최신 소방정보의 신속한 보급, 국내·외 가장 권위있는 소방전문인에 의한 다양한 국제교류의 시도는 우리나라 소방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장래 소방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큰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의 현실은 방재시험연구소가 개소되던 10년 전과는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소방대상물이 수요면에서 괄목상대로 커졌고 규모면에서 대형화 하였으며 소방인을 포함한 방재관련 종사자의 수가 대폭 증가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국민

들간에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재예방에 관한 연구과제가 국책사업으로 채택되는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 4. 맺는 말

다가오는 21세기에 소방수요와 국민의 안전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와 비례하여 소방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방재시험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돋보일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연구소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인적인 몇 가지 바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기술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세계가 인정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권위있는 UL, FM, LPC, VdS 등 인증기관은 모두 보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의한 막대한 자금력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규격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수익금 일부중 소방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므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술세미나 등을 자주 개최하여 산·학·연·관 협동을 통한 국내기술 교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활발한 국제기술 교류

를 통하여 얻은 각종 소방정보와 신기술을 관련기관 단체에 신속하게 보급 전파하는 원활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존중사상과 국민의 삶의 질을 창조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소방홍보 측면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같이 현 사회환경과 질서는 무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초고속의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21세기가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품과 기술의 Life Cycle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담보를 요하지 않는 신용분위의 외국자본과 기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기기술과 Know-how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생존하는 기업은 어느 회사 조직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부문은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방재나 소방기술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화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의 성공여부는 곧 소방기술의 사회보급 실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방재시험연구소의 10주년을 축하하며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